

‘진짜 여행자’가 된 멋진 북극여우 리사에게

안녕? 나는 대한민국 부산 3학년 유우야. 나는 동물을 정말 좋아해. 또 요즘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. 그래서 ‘북극여우 리사’라는 책이 눈에 띄게 왔지. 북극여우 리사라니! 너 어떤 아이일까 궁금했어.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북극여우인 너는 진짜 고향을 찾으려고 동물원을 탈출하고 여행을 시작했어. 동물원에서 사는 것은 편하고 좋았을 텐데,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니? 나라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아. 북극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는데 새로운 곳을 혼자서 찾아가기로 한 네가 아주 용감한 것 같아.

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서 멜리사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나침반을 선물 받았지? 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잘 모르는 너에게 나침반이라는 물건은 너의 여행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해. 나침반이 생겨서 갈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든든하겠단다. 그런데 너는 사실 야생동물이잖아? 꼭



나침반이 필요한 걸까? 원래 야생동물들은 나침반이
없어도 잘지내잖아. 나침반이 필요없을 때쯤, 너는
고향에 가 있을거야.

고향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나고 도움을 준 친구들
이 많았지? 그러면서 너는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
한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여행자가 여우와
늑장도 만났잖아! 그땐명이 너에게 잘 어울린
다고 생각했어. 동굴에서는 친구가 많아야
있었는데, 너는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 노는 걸
꼭꼭 숨겨 버린 거야. 긴 여행길에서 친구
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?

힘들고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북극에 도착했
어. 북극했지? 북극에서 작살기를 하고 새끼들을
키우면, 너의 여행에서 배우고 느낀 걸 가르쳐 주
는 거야. 여행 이야기는 영화 같았어. 나도 너 처
럼 용기있게,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
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. 이제 너의 고향
북극에서 행복하게 살
게 바라
고 있어.

